

WP “영화 미나리, ‘미국적 기준은?’ 질문 던져”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국적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강력하게 던졌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베트남계 미국인 유명 작가이자 풀리처상 수상자 비엣 타인 응우옌은 지난 24일 이 신문에 ‘미나리는 한국어로 쓰는 이민자에 대한 영화다. 그렇다고 미나리를 ‘외국 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응우옌은 “미나리 감독인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은 미국인이고, 미국인 배우를 캐스팅했으며 미국에서 제작됐다.”라며 “대사 대부분은 한국어이지만, 이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 결정은 ‘외국적’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이나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적이라고 판가름하는 기준이 언어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문화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응우옌은 “언어가 ‘외국적’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백인에겐 사실일 수 있지만 아시아계는 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듯하다.”라며 “‘영어’, ‘미국’ 자체가 단지 ‘백인임’과 엮일 때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현실 미국 사회에선 언어가 아닌 피부색이 더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디시어(유럽에서 쓰는 유대어) 대사가 대부분인 유대인 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치자.”라며 “그는 아마

이 영화가 미국 애기라고 HFPA를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미나리와 다른 점은 스피버그는 당연히 미국인이고 정 감독은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외국인 취급을 받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을 지닌 젊은 영화제작자라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디시어가 미국 언어라면 왜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 산 한국인 이민자가 쓰는 한국어, 19세기부터 이민 온 중국인이 쓰는 중국어는 아닌가?”라고 물었다.

응우옌은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미국인 가족의 애기를 다룬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과 독일어와 불어가 대부분 나오는 ‘바스터즈-거친 녀석들’이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라 상까지 받았으면서 “도대체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최근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부문으로 분류했다. HFPA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연출했으며,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한 미국 영화다.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아카데미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사진=영화 미나리 스틸컷 (판시네마)

NCT 정규 2집 ‘빌보드 200’ 역주행

그룹 ‘엔시티(NCT)’가 정규 2집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재진입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2021년 1월2일자 ‘빌보드200’ 차트에 따르면, NCT가 지난 10월12일 발매한 ‘엔시티 - 더 세컨드 앨범 레조넌스 파트1’은 역주행, 39위로 재진입했다. 월드 앨범 차트에서도 2위에 올라 NCT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타이틀 곡은 ‘메이크 어 위시’다. 훅킹한 휘파람 리프와 힙합 비트를 기반으로 했다. 태용과 도영, 재현, 루카스, 샤오젠, 재민, 쇼타로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앨범은 앞서 지난 10월 공개 직후 ‘빌보드 200’ 6위를 시작으로 4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했다. ‘월드 앨범’, ‘인디펜던트 앨범’ 1위, ‘소셜 50’,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2위, ‘아티스트 100’ 3위 등 빌보드 8개 차트 톱 10에 진입하며 세계적인 팬덤을 증명하기도 했다.

또한 NCT는 정규 2집으로 268만여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해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쾌거를 거뒀다.

타이틀 곡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는 영국 매거진 데이즈드(DAZED)가 선정한 ‘2020 최고의 K-팝 40곡’에, ‘프롬 홈(From Home)’이 미국 매거진 페이퍼가 발표한 ‘2020 최고의 K-팝 40곡’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숫자퍼즐 정답								
3	8	1	7	9	6	4	5	2
2	4	9	8	5	1	3	7	6
5	6	7	2	3	4	8	9	1
8	5	2	3	1	9	7	6	4
9	3	4	6	2	7	1	8	5
7	1	6	4	8	5	9	2	3
6	7	5	9	4	3	2	1	8
1	2	3	5	7	8	6	4	9
4	9	8	1	6	2	5	3	7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